

# 소비 성향부터 에너지까지...지구 진화 변천사



**인류의 발자국**  
앤터니 페나 지음  
황보영조 옮김  
삼천리 펴냄  
2만6천원

“지구의 생애와 인류 역사는 복잡하고 의미심장하게 서로 엮여 있다. 지구상에서 호모 사피엔스만큼 자연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은 없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지질과 기후, 생태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생명의 탄생과 소멸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잉태하기도 했다.”

지구 탄생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남긴 ‘인류의 발자국’을 탐사하는 야심찬 세계사의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 앤터니 페나 교수는 인간이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지구 역사에 적응하며 문명을 일구어 왔다는 관점에서 세계사를 바라본다.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기존 세계사 책에서 볼 수 없었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자연 세계와 인류 역사의 상호 의존성을 느낄 수 있다.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변화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몸부림쳐 온 인류의 생존 투쟁은 그야말로 한 편의 대하 드라마였다. 거대한 자연의 일원이었던 수렵채취인들은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데 필요한 직업적 자제와 큰 채취, 복잡한 두뇌, 원시적 도구

사용 기술을 갖춰 나갔다. 불을 발견하고 야생식물을 재배하고 가족을 사육하고 문자를 발명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고대 문명’이라고 부르는 세계로 발돋움해 나갈 준비를 마쳤다.

대개 인류에 관한 이야기, 곧 세계사는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지구 생태계를 전제로 하기에 지구의 기원이나 수십억 년에 걸친 지구의 변화와 발전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은 문명이나 국가, 영웅 이야기나 전쟁과 혁명 같은 사건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기존의 세계사가 이미 이렇게 놓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역사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이 책은 인류의 생명을 비롯하여 모든 생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 지구의 진화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비교 방법론으로 인류의 과거를 탐사하면서 지질학과 기후학, 인구학, 고고학, 진화생물학, 인류학, 역사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최신 연구를 종합하는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20세기 들어 세계사 연구자들이 직면한 커다란 지적인 도전이 있다. 개별 국가의 역사를 엮어서 세계사를 만들고, 조각난 역사를 묶어서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전체를 만드는 작업이다.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어 인구 이동이나 경제변동, 기후변화, 기술이전과 같은 요인들을 밝혀 설명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세계사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한다. 그동안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는 접근 수단이 되어 온 국민국가를 뛰어넘어, 세계사 연구자들이 이제 좀 더 광범한 맥락에서 역사 발전을 파

악하게 해줄 수 있는 연관성과 비교, 체계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는 까닭이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 역사학계를 이끌어 온 아젠다는 역사적 시공간을 깊이 파고들어 개인이나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밝혀내는 미시사가 강세였다. 그런가 하면 지역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면서 세계사 분야에 새로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정한 주제나 개별 지역에 대한 연구가 과거의 삶을 밝히는 데 중요하듯이, 인류 역사의 관점에서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거시사, 곧 시간과 공간,

## 자연과 인간, 조화와 갈등 풍경

### 지질, 인류, 종교 등 융합적 연구시도

### 인간성 상실 큰 문제 대두

### “지구와 생명체 더불어 진화”

인간과 자연을 서로 관련지어 역사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중요하다.

지구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21세기 환경에서는 이런 과제가 특히 더 부각되고 있다. 개인이나 국가를 강조하지 않는 이 책은, 지난 200년 동안 세계사를 ‘유럽-미국을 패러다임’에 종속시켜 온 서사(敘事) 지배를 무너뜨리고 인류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편견 없이 들여다본다.

이 책에는 흔히 역사책이라 하면 빠지지 않는 페르시아전쟁이나 서로마제국의 멸망, 십자

군전쟁, 프랑크혁명 이야기도 없고, 카이사르나 나폴레옹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농업혁명, 석탄혁명, 기후변화, 커피와 설탕, 자동차와 소비문화처럼 그동안 역사책에서 소홀히 넘겨버린 주제를 재조명하며 인류의 노동과 삶을 빠른 속도로 조망해 낸다. 자연 세계와 인간 세계가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풍경은, 오늘날 지구촌에 산재한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역사학의 본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변화와 인구, 질병, 식량과 영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전 세계의 농업과 산업화, 도시화는 무역과 소비를 통해 인간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 구리와 철, 석탄과 석유,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생태계와 기후에 영향을 주며 현대사회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먼 옛날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나와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주하고 고대인들이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지만, 도시국가든 거대한 제국든 지구 환경의 자연스런 변화 또는 인간이 자초한 환경 파괴로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앤터니 페나 교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류가 남긴 선명한 생태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구와 생명체는 더불어 진화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둘러싸고 끝없이 벌어지는 논란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신라의 역사와 신라인의 종교사상 소개

## 수이전

이대형 편역 | 소명출판 | 2만4천원



《수이전》은 ‘신라수이전(新羅殊異傳)’ 또는 ‘신라이전(新羅異傳)’, ‘고본 수이전(古本殊異傳)’이라 표기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작자는 최치원(857-?), 개작자는 박인량(?-1096)과 김척명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신라 말엽에 간행되고 이후 개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수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전기(傳奇) 최치원은 우리나라 소설의 기원이 되는 작품으로 주장되기도 한다. 1980년대까지는 대체로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이라고 인정되어 왔으나 1990년대부터 최치원이 《금오신화》와 질적인 차이가 없는 작품으로서 소설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전개되어 많은 고소설 연구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편폭도 가장 긴 최치원은 《수이전》에서 최고의 작품이라 할 만하다.

《태평통제》의 최치원과 《대동운부군옥》의 《선녀의 붉은 주머니(仙女紅袋)》는 같은 작품인데, 《대동운부군옥》이 운(韻)에 따라 배열해 놓은 사전이다 보니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핵심어를 ‘선녀홍대’로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축약하여 수록한 것이다.

《태평통제》의 ‘지귀’와 《대동운부군옥》·《해동잡록》의 ‘마음의 불이 탑을 두르다(心火燒塔)’의 관계도 그러하다. 선덕왕은 《삼국사절요》와 《해동잡록》에 전하는데 이야기의 핵심은 같지만 주인공의 신분과 서술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호랑이의 바람(虎願)’은 《대동운부군옥》 성격상 축약된 것으로 보이고, 《삼국유사》 권5에 실린 《수이전》 관련자료 《김현이 호랑이에게 감동하다(金現感虎)》가 원래의 모습과 유사하리라 추정된다. 역시 관련자료인 《술과가는 인도의 이야기인데 불경에 실려 있어서 《지귀》에 영향 준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자료 《흑풍이 배를 불어제끼다(黑風吹其船舫)》는 《법화경》과 관련한 영험담을 실은 《법화영험전》에 있는 이야기인데 ‘보개’와 관련된다.

관련자료 ‘쌍녀문’은 ‘최치원’과 관련된다. 《가야산 소림 중창기(伽耶山蘇林菴重創記)》는 《신라수이전》서 소림에 관한 기록을 인용하고 있어서 관련 자료로 실었다.

위처럼 비슷하고 영향을 준 작품들이 산재하여 존재하는 《수이전》은 최치원이 돌보이는 작품이지만, 그보다 분량은 짧지만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할 만한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일개 병사가 선덕왕을 짝사랑하다가 불귀신이 되었다는 이야기, 호랑이 여자가 남자를 위해 희생한 이야기, 선덕여왕이 기미를 파악한 세 가지 사건, 사랑하는 여자를 잊지 못해 다시 살아난 최왕의 이야기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재미가 있으면서도 당시 신라의 배경과 역사적 사건, 신라인들의 사상 등도 함께 담고 있다.

한문으로 기록된 문헌은 번역을 했다 해도 기본적인 한문 지식이 있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예비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수이전》 번역본에서는 가능한

## 《법화경》 영험담도 실려 있어

### 원문과 번역문 함께 배치

자세한 주석을 붙였다. 작품을 읽으면서 필요한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오류의 정정 등, 원문과 번역문 양쪽에 꼼꼼하게 달려있는 주석들은 한문 이해에 대한 초보자나 일반 독자들을 배려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을 위해서도 원문과 번역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좌우면으로 배열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앞뒤로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렇게 하면 원문과 번역을 따로따로 보게 되고 한눈에 살펴보기도 어렵다.

짧은 작품일수록 표현의 의미를 섬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집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좌우 맞췄으며 원문과 번역문을 배치하며 편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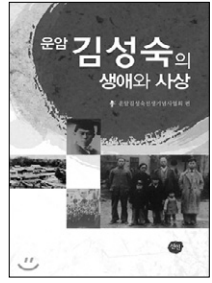
책 말미에는 한문 원문을 영인하여 부록으로 뒤에 실었다. 원문을 활자화하여 실었지만 해당 작품의 출처 문헌의 영인본을 실음으로써 활자화된 원문과 비교할 수 있도록 배열하였다. 여러 책에 산재한 《수이전》 흔적을 한 데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수록되어있는 해당 작품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일 기자

# 태허 스님 항일정신과 불교사상 조명

## 운암 김성숙의 생애와 사상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지음  
선인 펴냄 | 2만8천원



“조국 광복을 위해 일본제국주의에 항쟁하고 정의와 대중복리를 위해 모든 사회와 싸우며 한평생 가시밭길에서 오직 이상과 지조로써 살고간 이가 계셨으니 운암 김성숙 선생이시다...” 그의 모범처럼 김성숙(태허스님)의 생애와 독립운동 행적을 가시밭길을 헤쳐나간 애환을 느낄 수 있다.

승려로 독립운동가로 정치가로서의 그의 다양한 삶은 이상과 지조로 일관했다. 김성숙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의 옥고를 치른 후 1923년 중국으로 망명했다. 1920년대 중산대학에서의 수학, 의열단에서의 활동, 그리고 광주봉기 참여, 1930년대 중국 국민당정부를 파트너

로 한 조선민족전선연맹·조선의용대 활동, 특히 1938년 기강에서 개최된 한국혁명운동동일단체회의를 계기로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 체제에 합류했다.

김성숙은 계파와 노선을 뛰어넘어 독립운동 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임정 참여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차장·국무위원으로 활동했고 광복 이후에는 민족통일을 위한 좌우합작을 위해 힘썼으며 혁신계 중진으로도 일했다. 이렇듯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운암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과 뜻을 기리기 위해 2006년 사단법인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를 설립했다. 이 기념사업회를 통해 학술연구사업·추모사업·애국선양사업·장학사업·홍보사업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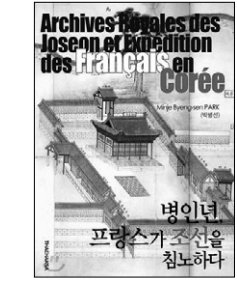
그 외에도 관련 자료수집과 학술회의 개최,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펼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김성숙의 항일운동 활약상과 불교정신 등을 집중 했다.

김주일 기자

# 생전에 집필한 ‘직지찾기’ 과정

##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박병선 지음 | 태학사 펴냄 | 2만원



‘직지의 대모’ 고 박병선 박사의 유고집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가 조상에 나왔다. 2011년 83세를 일기로 타계한 뒤 2년 만이다. 박 박사는 평생을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헌신한 재벌 역사학자다.

33세의 나이에 한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중 도서관 중국서적 코너서 고려시대 금속활자 인쇄본 《직지심체요절(직지)》을 발견해 냈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1455년 독일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42행 성서’ 보다 78년 앞선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이다.



박 박사는 그동안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과 함께 의계 반환 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2011년 5월 297권의 의규장각 의계가 145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조의 의계-파리 소장본과 국내 소장본의 서지학적 비교 검토(1985)》(프랑스 소재 한국독립운동 자료집 1(2006))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2008)》 등이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병인년, 프랑스가 조선을 침노하다》 후속편을 집필하던 중 2011년 11월 23일 유명을 달리 했다.

김주일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예뵈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블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규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영숙)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매매 잔금 대출
- 불사 자금 대출
- 기타 대출 상담

전문상담 : 전주 서일영 010-3527-1037  
차장 정종철 010-2543-1037

사찰안내

경북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 118-1번지 외

- 토 지 1,220평
- 대중전 45평
- 요사채 38평
- 매매가 7억 5천만원

전문상담 : 전주 서일영 010-3527-1037  
팀장 장재영 010-4505-7180

**보현사신협**  
문의전화 (053)428-1133

**한국불교 전통 의식대학 제1기 신입생 모집**

**강의 내용**

- 안채비 : 각종 불교의식, 49재 천도의식, 점안의식, 신중작법, 평영법, 상주권공재, 시왕가배재, 영산재 염불, 깃소리, 긴소리.
- 걸채비 : 바라춤, 천수바라, 도량제작법, 사다라니바라춤 등
- 사물다루는 법

**모집 대상**

-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
- 포교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
- 염불을 배우고자 하는 일반 재가불자

**2학년 4학기 과정**

- ① 교육기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①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본 교육원에 비치) 반명함판 사진 2통
- ① 교육비 : 매월 ₩ 100,000
- ① 문의 :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총무원 전 화 : 051)442-1818 교무국장 011-837-5701
- ① 교육장사 : 부산지방 무형 문화재 제9호 이수자 혜철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서부총무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 집중!!!**  
식물 인슐린 이롭고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 중**